‘불교문화재 도난백서’ 리뉴얼됐다

조계종, 8년여 만에 백서 증보판 PDF 발간

도난 불교문화재 매매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계종의 〈불교문화재 도난백서〉가 새롭게 리뉴얼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도난된 불교문화재가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 사찰로 환지본처하기 위해 〈불교문화재 도난백서(1984~2015) 증보판〉을 발간했다”고 2월 14일 밝혔다.

이번 증보판은 1999년 조계종이 처음으로 발간한 도난백서 이후 8년 만의 리뉴얼로, 그동안 종단에 축적된 자료와 문화재청의 도난 신고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국문과 영문으로 제작



종단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1999년 이후 153건 증보돼

문화재 불법매매 방지 역할

됐으며,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PDF 형태로 현재 조계종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이용을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문화’와 ‘성보문화재의 이해’를 찾으면 된다.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증보판(1984~2015)〉은 기존 백서보다 신규로 153건을 증보했다. 추가된 도난 문화재는 갑장사 불상, 화엄사 경갑·어작 등이다. 내용은 사진이 게재된 PART I 302건과 사진이 미게재된 PART II 138건으로 구성해 총 440건을 게재했다. 증보판의 목차순서는 불교문화재의 도난율에 따라 불교회화, 불교조각, 불교석조물, 불교공예, 경전·경판의 순으로 이뤄졌다.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증보판 발간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난 불교문화재 환수 기반과 경매 시장에서 유통을 막는데 백서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번 백서 증보판 발간은 도난 불교문화재의 불법 유통·매매 방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유철 조계종 문화부 행정관은 “문화재 소유자가 직접 나서서 도난을 고지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로 성보 환수의 종단 의지를 확인 할 수 있다”며 “백서에 등록된 성보들은 도난 사실을 입증하고 있어 경매시장 등에서 유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증보판(1984~2015)〉 영문본 배포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등과 협의해 문화재청에서 해외 배포를 담당한다. 신성민 기자

포교사 활용법, 콘텐츠 개발 시급

[진단] 포교사 제도, 이대로 좋은가 下

매년 400명이 넘는 조계종 포교사들이 포교사 자격을 포기하고 있다. 응시자 급감에 맞물려 포교사 감소가 가시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이런 가운데 포교사들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그들의 활동을 장려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매년 400명, 포교사 그만둔다

포교사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포교사 갱신율은 7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교사단이 밝힌 연도별 포교사 갱신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324명이 자격 갱신을 미신청했으며, 2015년 402명이 미신청, 61명이 신청 후 탈락했다.(갱신율 64.2%) 2016년에는 406명이 미신청, 33명이 신청 후 탈락했다. 전체 포교사 대비 갱신율은 2015년 73.6%, 2015년 64.2%, 2016년 68%다.

최근 포교사 고시 최종 합격자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포교사가 되는 이들에 비해 자격을 포기하는 이들이 적었다면 이제는 같아진 셈이다. 자격 갱신 포기의 전 단계인 미활동 인원도 증가추세다. 미활동 포교사의 경우 2012년 126명, 2013년 174명, 2014년 208명, 2015년 170명, 2016년 298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경우 30여명 선에서 2014년 74명, 2015년 86명 2016년 128명 등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 등 미활동 포교사 증가

팀 내 역할·전문성 강화

젊은 세대 포섭 노력 필요

역할 배분 미흡·자신감 결여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포교사단은 역할 배분 미흡과 자신감 결여 등을 문제점으로 분석했다. 한 포교사는 “군법당서 법문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간 다른 역할만 맡아 와서 자신이 없었다. 이후 자연스럽게 법회 준비에 치중하게 됐다. 어느 날 회의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윤기중 포교사단장은 “포교사들은 대부분 팀제로 각각 역할을 나눠 활동한다”며 “때문에 포교사 역할을 배분하는 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400여 명의 활동팀장에 대한 리더십 교육을 올해부터 시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포교사단은 포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교재편찬위에서 편찬한 연수교육 교재를 4월부터 교육에 도입하고, 집체교육이 어려운 부분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5060 편중 분포, 10년 뒤는?

이와 함께 포교사들의 분포가 현재 5060세대에 집중돼 있는 점도 자연스럽게 70대가 되며 갱신을 포기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포교원의 2016 포교현황 자료 중 ‘연령별 포교사 현황’을 보면 50대가 전체의 50.1%(2391명), 60대가 33.7%(1610명)이었다. 70대는 4.8%(232명), 80대는 0.3%(15명)로 고령에서 포교사 활동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오랜 기간 활동할 수 있는 40대는 9.9%(476명), 20대와 30대는 전체를 통틀어 47명에 불과했다.

이수영 포교사단 서울지역단장은 “자녀를 결혼시키고, 직장생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50대 이상이 활발히 활동한다. 연륜과 오랜 수행력도 어느 정도 기반은 돼야 한다”며 “젊은 세대들이 포교사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화 조계사 포교팀 본부장은 “인터넷 포교상담 등 고령의 어르신이나 아직 경륜이 부족한 젊은 세대들도 포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활동 영역이 개발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포교부장 가섭 스님은 “포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포교사가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불교도 없었을 것”이라며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단복 등 위의 체제 개편과 콘텐츠 개발 등도 필요해 보인다. 전법단과 포교사단을 두 축으로 함께 미래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멸빈자 사면, 3개안 법리적 검토

단서조항 삭제안부터 부칙 삽입 등 논의

조계종 멸빈자 사면 관련 종헌개정 논의가 총 3개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2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사면 관련 종헌 개정안 및 사면법 제정안 논의의 건 △징계법 제정안 논의의 건 등을 다뤘다.

이날 중앙종회 사무처에서 마련한 멸빈자 사면 종헌개정안은 2개다. 1안은 종헌 부칙을 신설,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부터 2016년까지 멸빈 및 체탈도첩 징계를 받은 자 중 출가독신자로 생활하며 참회와 개전의 정이 뚜렷한 자에 한해 적용되는 1회성 사면이다. 2안은 현행 종헌 128조 단서조항을 수정한 것으로 ‘다만,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중앙종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사면한다’고 했다.

두 개정안 모두 사면 이후 5년간 종헌종법상 선출직·직임직·품임직·선임직·위촉직 등 일체 종무직 취임을 제한했다. 또 각급 선거 및 산중총회 등서 선거권 및 선출권을 갖지 못한다.

1안에 대해 위원들은 부칙이 종헌 본조항의 효력과 상반되고, 이를 넘어서는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2안은 멸빈자 사면에 입법기구인 중앙종회 동의가 필요한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외에 정치적 의도로 이뤄진 멸빈과 사바라이죄에 해당하는 멸빈에 구분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소위원회는 이후 종헌 128조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안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 차기 회의에 각 개정안 별로 법률사무소 검토 의견을 받아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은퇴출가, 역할보다 문호 개방 초점

2월 15일 출가특위 공청회

진일보했지만 한계는 여전



은퇴출가제도에 대한 대중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열렸다. 공개된 초안은 과거안에 비해 진일보했으나 종무직 등 소임에 대한 권리가 제한돼 한계는 여전했다. 이에 따라 은퇴출가제도는 문호개방 후 수정해나가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중앙종회 출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수암)는 2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은퇴출가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사진〉 이 자리에는 중앙종회의원과 교역직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기획실장 주경 스님은 은퇴출가제도 초안을 설명했다. 초안은 지난 특위 회의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다만 사미(니)계 수계 후 10년이 지나 구족계를 수계할 수 있었던 것을 5년으로 축소했다.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초안에 따르면 행자생활은 3년이다. 사회 각 분야서 15년 이상 활동해 개인 복지를 일정부분 충당케 했다. 또한 법계 취득이 제외되고, 각종 소임에 대한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수행생활’에 중점을 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신년기자회견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밝힌 “전문분야에서 소임을 맡아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최초 제정 목적과는 상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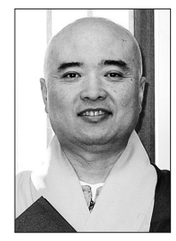
질의응답 시간에는 은퇴출가자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중앙종회의원 우봉 스님은 ‘수행자’와 ‘소임 희망자’ 구분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초안 자체에 소임이 배제돼 유의미한 토론이 이어지진 않았다. 이어 묘주 스님은 “은퇴출가에 따른 대사회적 측면도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주경 스님은 “대학졸업자 반 이상은 전공을 살리지 않는다. 이처럼 은퇴출가자의 활용은 각 교구본사 내에서 대중이 정하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토론자로 나선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원철 스님은 “(은퇴출가제도를) 좋은 뜻으로 만들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예측 가능 범위 내에서 긍정적 요소를 최대화하고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했으면 좋겠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주경 스님은 “현재 은퇴출가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한 응급조치 정도로 봐주셨으면 한다. 추후 의견에 따라 다양한 변화도 가능하다. 우선 시행착오는 각오하고 문호를 여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출가상담사 은산 스님 위촉



일반인들에게 출가 방법 등을 상담하는 신임 조계종 출가상담사에 거창 행복한절 주지 은산 스님〈사진〉이 위촉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2월 13일 교육원장실에서 신임 출가상담사 은산 스님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은 前 출가상담사였던 가섭 스님이 포교원 포교부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출가상담사 위촉 이후 은산 스님은 “처음 행자입문과정이 생겼을 때 상담사로 활동하기는 했으나 거창 지역에서 맡고 있는 소임이 많아서 그간 신경을 쓰지 못했다”며 “다시 종단에서 불러주신만큼 열심히 활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출가상담사 은산 스님은 해인사를 재적본사로 1995년 수계했으며, 행자교육 상담사로 활동한 바 있다. 거창군 복지관 관장, 해인사 월간해인 편집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거창군 소재 행복한절 주지 소임을 타고 있다.

신성민 기자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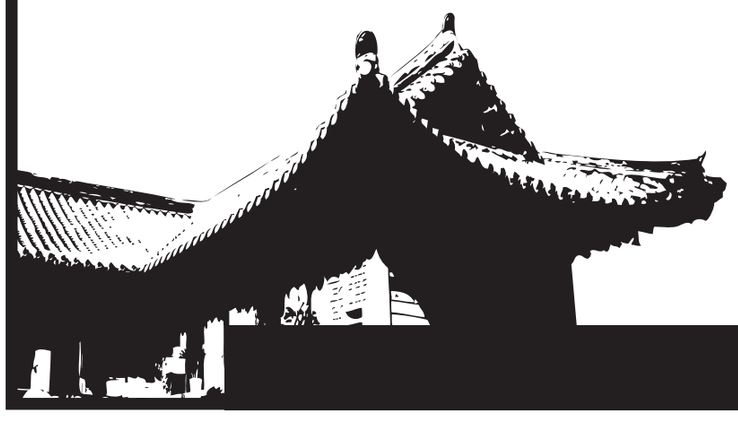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